26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 문을 연 '광주·전남G&J갤러리'.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작가 서울 진출을 돕기 위해 공동 운영한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서울 인사동에 'G&J갤러리' 개관

광주시립미술관·전남문화관광재단 공동 운영 … 번갈아 지역 작가 대관 전시

28일 개관전 '수묵으로 사유…'

남종화의 과거와 현재 소개

광주·전남은 예로부터 실력있는 작가들을 꾸준히 배출해 온 지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작가들의 중앙화단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와 전남은 민선 6기 들어 각종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한 'G&J 광주·전남갤러리'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서 26일 개관했다.

'G&J갤러리'는 높은 대관료로 수도권 전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작가들을 지원하고 남도 미술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인사동 한복판 인사마루 건물에 자리잡은 갤러리는 1~3층을 임대해 총 360㎡ 면적을 전시장소로 사용한다.

운영은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남문화관광재단이 맡아 2주일씩 번갈아 가며 각 지역 작가 대관 전시를 연다. 또 1년에 2~3차례 자체 기획전을 열고 1차례 합동 전시도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2008년 인사동에 230㎡(약 70평) 규모 '갤러리 LIGHT'를 개관, 지방 공립미술관 최초로 서울에 자체 갤러리 운영했다. 이후 2012년 9월부터는 종로구 사간동으로 장소를 옮겨 '갤러리 GMA'(240㎡ 규모)를 운영했다.

광주·전남이 공동 운영을 하는 만큼 'G&J갤러리'는 규모와 시설면에서 더욱 발전한 모습이다. 전시실 뿐 아니라 작가 휴게실, 회의실, 수장고 등을 갖춰 편의를 제공한다.

대관료는 광주·전남 출신 작가일 때 1주일에 100만원. 주변 사설 갤러리가 1주일에 평균 3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파격적인 금액이다. 타 지역 출신은 1주일 300만원이다.

G&J갤러리 외부 모습. 5층 건물 중 1~3층(총 360㎡)을 임대해 운영한다.

의재 허백련 작 '대풍'

11월28일 열리는 개관전은 '수묵으로 사유하다'를 주제로 광주·전남 미술 뿌리 남종화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는 전시로 준비했다.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을 비롯한 작가 21명 작품을 통해 남도 수묵화의 고즈넉한 멋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허백련의 '대풍' 작품은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산 밑으로 사람들을 조그맣게 그려 넣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겸손함이 느껴진다. 허건의 작품 '추경'도 비슷한 분위기다. 화면 하단에 강인한 기운을 풍기는 소나무를 배치하고 한가로이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사람을 등장시켰다.

또 의경 산수에서 벗어나 현실 속 모습을 그린 석성 김형수(87) 화백부터 콜라쥬 형식 수묵을 선보이는 30대 설박 작가까지 다양한 세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 영역을 넓혀 수묵 정신에 바탕을 둔 다른 장르도 선보인다. 배병우 사진 작가의 소나무 사진을 비롯해 '구름화가' 강운 작가의 '공기와 꿈',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작품 '신-세한도'도 전시한다. 문의 02-725-004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시월의 마지막을 붙잡고 싶은 사람들

인문학 파티·음악회·연주회 즐겨요

광산구 장덕동 근대 한옥

풍암동 싸목싸목 다목적홀

광주 문예회관 등에서 열려

가수 이용은 노래 '잊혀진 계절'에서 시월의 마지막 밤을 그리워했다. 10월을 붙잡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된다.

시월 마지막 토요일(29일), 수완지구 장덕동근대한옥에서 '인문학 파티, 광장으로'가 열린다.

광주시 광산구가 주최하고 전남대 철학연구소와 문화기획사 휴아트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모두 나와 광장에서 만나자'를 주제로 오후 4시 장덕동 근대한옥 앞마당에서 열린다.

첫번째 프로그램 '광장 인문학'특강은 박구용 교수가 참여해 역사적 사건들이 발화하는 장소로서 광장과 시민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열리는 '내 인생의 책'섹션에서는 책과 함께 인생 이야기를 나눈다. 참가자들은 마음에 드는 책과 구절에 담긴 사연과 인생을 들려주며 교감한다. 특별한 사연을 선정해 선물도 증정한다.

광주와 서울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광장토크콘서트'도 진행된다. '광장음악회'와 문화나눔 프로젝트 '1000FACE'가 열리며 시민들이 만드는 자생적 지역 문화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그밖에 마지막 '우아한 밥상'은 도예 전시와 음식 나눔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희창 도예가의 옹기 전시와 함께 그릇과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먹는 시간이다. 문의 062-960-8536.

31일에는 (사)문화예술협회가 짝수달 마지막주 월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음악회'가 펼쳐진다. 오후 7시30분 풍암동 '싸목 싸목' 다목적홀.

이번 음악회에서는 클래식과 함께 가요,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피아노 트리오 'Kreuz'(바이올린 권경락, 첼로 김동규, 피아노 김준현)가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겨울'을 들려주며 바리톤 황성철의 러시아 민요 '백학', 소프라노 권효진의 오페라 '보헤미안 걸' 중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를 노래한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광주 리코더하모니앙상블이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9번 4악장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연주한다. www.artgj.co.kr. 문의 062-384-2033, 654-2692.

광주시 북구는 같은날 오후 7시부터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주부들로 구성된 북구합창단 제16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국경완 지휘자가 이끄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조송은씨가 피아노를 맡아 합창단과 화음을 선보이고, 2개 공연팀이 특별출연한다.

북구합창단은 '야래향',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등을 선사하고 '잊혀진 계절'을 관람객들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는다.

또 테너 국인철씨와 대구시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이 특별출연해 '그리운 금강산', '공주는 잠못 이루고'와 '여리고 성의 전투', '구름아 부탁해', '아리랑'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62-510-122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고총동문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내일 호남신대 예음홀

광주여고총동창회는 지난 2012년 5월 합창단(사진)을 창단했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노래를 통해 동문들이 화합하고 추억을 쌓았던 모교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였다.

단원들은 50대부터 80대 3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1회 동문인 강숙자 전남대 교수가 초대 지휘자로 활동했다. 올해부터는 역시 동문인 김혜숙씨가 지휘자로 김선영씨가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다.

합창단은 창단 후 매주 화요일 모여 연습을 했고,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총동창회와 후배들의 축제 한마당 '난원제'와 총동창회 총회 등에서 실력을 뽐내왔다. 올해는 광주 중외공원에서 열린 시민음악회에도 참여했다.

광주여고총동문합창단(단장 진봉례) 제1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8일 오후 6시30분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에서 열린다. 방송인 양지현씨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는 가곡, 동요, 외국민요, 오페라 삽입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한다.

단원들은 이날 공연에서 '섬집 아기', '낮에 나온 반달', '라쿠카라차', '군밤 타령', '사공의 노래' 등을 들려준다. 단무장을 맡고 있는 남영숙씨 외 11명의 단원들이 중창으로 '희망의 속삭임'과 '잊혀진 계절'을 선사한다.

또 강숙자 전남대교수가 '코스모스를 노래함'과 '내 맘의 강물'을 부르며 18회 졸업생인 피아니스트 서영화 조선대 교수가 박지현 교수씨와 함께 크라이슬러와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등을 선사한다.

그밖에 베르디의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귀 기울여봐', '어머니' 등을 들려준다. 문의 010-3605-78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